

국 어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 능동과 피동의 관계를 정확하게 사용함.
-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 삼가기
 - ㉡ 중의적인 문장을 사용하지 않음.
- 명료한 수식어구 사용
 - ㉢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함.
- 대등한 구조를 보여 주는 표현 사용
 - ㉣ ‘-고’, ‘와/과’ 등으로 접속될 때에는 대등한 관계를 사용함.

- ①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명을 선출되었다.”를 ㉠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명이 선출되었다.”로 수정한다.
-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하였다.”를 ㉡에 따라 “시장은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로 수정한다.
- ③ “5킬로그램 정도의 금 보관함”을 ㉢에 따라 “금 5킬로그램 정도를 담은 보관함”으로 수정한다.
- ④ “음식물의 신선도 유지와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를 ㉣에 따라 “음식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2.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오늘날 급성전염병에 속하는 병들의 다양한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염성, 고통의 정도, 질병의 원인, 몸에 나타난 증상 등 작명의 과정에서 주목한 바는 각기 달랐다.

예를 들어, ‘역병(疫病)’은 사람이 고된 일을 치르듯[役] 병에 걸려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여역(厲疫)’이란 말은 힘들다[疫]는 뜻에다가 사납다[厲]는 의미가 더해져 있다. 현재의 성홍열로 추정되는 ‘당독역(唐毒疫)’은 오랑캐처럼 사납고[唐], 독을 먹은 듯 고통스럽다[毒]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염병(染病)’은 전염성에 주목한 이름이고, 마찬가지로 ‘윤행괴질(輪行怪疾)’ 역시 수레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듯 한다는 뜻으로 질병의 전염성을 크게 강조한 이름이다.

‘시기병(時氣病)’이란 특정 시기의 좋지 못한 기운으로 인해 생기는 전염병을 말하는데, 질병의 원인으로 나쁜 대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온역(溫疫)’에 들어 있는 ‘온(溫)’은 이 병을 일으키는 계절적 원인을 가리킨다. 이밖에 ‘두창(痘瘡)’이나 ‘마진(麻疹)’ 따위의 병명은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그 모양이 룡 또는 삼씨 모양인 것을 강조한 말이다.

- ① ‘온역’은 질병의 원인에 주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② ‘역병’은 질병의 전염성에 주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③ ‘당독역’은 질병의 고통스러운 정도에 주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④ ‘마진’은 질병으로 인해 몸에 나타난 증상에 주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플라톤의 『국가』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언급이 있다. 우리가 만약 이것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플라톤은 말하고 있다. 하나는 대다수가 갖고 싶어하는 재물이며, 다른 하나는 대다수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성적 욕망이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케팔로스에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이 많아서 좋은 점과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이가 많아서 좋은 점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플라톤은 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케팔로스는 재물이 많으면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고, 나이가 많으면 성적 욕망을 쉽게 통제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물론 재물이 적다고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며, 나이가 적다고 해서 성적 욕망을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것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 삶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욕망이나 성적 욕망만이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낭패를 당하거나 망신을 당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인간에 대한 플라톤의 통찰력과 삶에 대한 지혜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 ① 재물욕과 성욕은 과거나 지금이나 가장 강한 욕망이다.
- ② 재물이 많으면서 나이가 많은 자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 ③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재물욕과 성욕을 잘 다스려야 한다.
- ④ 잘 살기 위해서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4. 다음 글의 ㉠ ~ ㉣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언어는 랑그와 파롤로 구분할 수 있다. 랑그는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추상적인 언어의 모습으로, 특정한 언어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기호체계를 가리킨다. 반면에 파롤은 구체적인 언어의 모습으로, 의사소통을 위해 랑그를 사용하는 개인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언어학자들은 흔히 ㉠ 랑그를 악보에 비유하고, 파롤을 실제 연주에 비유하곤 하는데, 악보는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 연주는 그 고정된 악보를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 랑그는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기본을 이루는 언어의 본질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한편 ‘책상’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사람마다 발음되는 소리는 다르기 때문에 ‘책상’에 대한 발음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 실제로 발음되는 제각각의 소리값이 파롤이다.

랑그와 파롤 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언어능력과 언어수행이 있다. 자기 모국어에 대해 사람들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언어능력이고, 사람들이 실제로 발화하는 행위가 언어수행이다. ㉣ 파롤이 언어능력에 대응한다면, 랑그는 언어수행에 대응한다.

- ① ㉠: 랑그를 실제 연주에 비유하고, 파롤을 악보에 비유하곤
- ② ㉡: 랑그는 여러 상황에 맞춰 변화하는 언어의 본질적인 모습
- ③ ㉢: 실제로 발음되는 제각각의 소리값이 랑그
- ④ ㉣: 랑그가 언어능력에 대응한다면, 파롤은 언어수행에 대응

5. 다음 글의 핵심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판타지와 SF의 차별성은 ‘낯설’과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는 기준을 통해 드러난다. 이 둘은 일반적으로 상반된 의미를 갖는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낯설지 않고, 낯선 것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판타지와 SF에는 모두 새롭고 낯선 것이 등장하는데, 비근한 예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괴물의 출현이다. 판타지에서 낯선 괴물이 나오면 사람들은 ‘저게 뭐지?’하면서도 그 낯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렇기에 등장인물과 독자 모두 그 괴물을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받아들이고, 괴물은 등장하자마자 세계의 일부가 된다. 결국 판타지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달리 SF에서는 ‘그런 괴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지?’라고 의심하고 물어야 한다. SF에서는 인물과 독자들이 작가의 경험적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괴물은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다. 괴물의 낯설에 대한 질문은 괴물이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지식, 세계관, 나아가 정체성의 문제로 확장된다. 이처럼 SF에서는 어떤 새로운 것이 등장했을 때 그 낯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인식의 틀로 끌어들이어 재조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 ① 판타지와 SF는 모두 새로운 것에 의해 알고 있는 것이 바뀌는 장르이다.
- ② 판타지와 SF는 모두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둘 사이의 재조정이 필요한 장르이다.
- ③ 판타지는 새로운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SF는 알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한 장르이다.
- ④ 판타지는 알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하고, SF는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재조정이 필요한 장르이다.

6.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로빈후드는 14세기 후반인 1377년경에 인기를 끈 작품 <농부 피어츠>에 최초로 등장한다. 로빈후드 이야기는 주로 숲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숲에 사는 로빈후드 무리는 사슴고기를 중요시하는데 당시 숲은 왕의 영지였고 사슴 밀렵은 범죄였다. 왕의 영지에 있는 사슴에 대한 밀렵을 금지하는 법은 11세기 후반 잉글랜드를 정복한 윌리엄 왕이 제정한 것이므로 아마도 로빈후드 이야기가 그 이전 시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야기에서 셔우드 숲을 한 바퀴 돌고 로빈후드를 만났다고 하는 국왕 에드워드는 1307년에 즉위하여 20년간 재위한 2세일 가능성이 있다. 1세에서 3세까지의 에드워드 국왕 가운데 이 지역의 순행 기록이 있는 사람은 에드워드 2세뿐이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추론할 때, 로빈후드 이야기의 시대 배경은 아마도 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 ① 11세기 후반
- ② 14세기 이전
- ③ 14세기 전반
- ④ 14세기 후반

7. (가) ~ (다)를 맥락에 맞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북방에 사는 매는 덩치가 크고 사냥도 잘한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몽골 고원과 연해주 지역에 사는 매들이 인기가 있었다.

(가) 조선과 일본의 단절된 관계는 1609년 기유조약이 체결되면서 회복되었다. 하지만 이때는 조선과 일본이 서로를 직접 상대했던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대마도를 매개로 했다. 대마도는 막부로부터 조선의 외교·무역권을 위임받았고, 조선은 그러한 대마도에게 시혜를 베풀어줌으로써 일본과의 교린 체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했다.

(나) 일본에서 이 북방의 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한반도를 통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 그래서 한반도와 일본 간의 교류에 매가 중요한 물품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교류는 단절되었다.

(다) 이러한 외교관계에 매 교역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마도는 조선과의 공식적, 비공식적 무역을 통해서도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 따라서 조선후기에 이루어진 매 교역은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외교적인 성격이 강했다.

- ① (가) - (다) - (나) ② (나) - (가) - (다)
- ③ (나) - (다) - (가) ④ (다) - (나) - (가)

8.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사흘이라고 하면 시간상 72시간을 의미하는데, 예수는 금요일 오후에 죽어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했으니 구체적인 시간을 따진다면 48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한 것은 예수의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일까?

여기에는 수를 세는 방식의 차이가 개입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수에는 ‘0’ 개념이 깔려 있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해당 개념이 없었다. ‘0’ 개념은 13세기가 되어서야 유럽으로 들어왔으니, ‘0’ 개념이 들어오기 전 시간의 길이는 ‘1’부터 셈했다. 다시 말해 시간의 시작점 역시 ‘1’로 셈했다는 것인데, 금요일부터 다음 금요일까지는 7일이 되지만, 시작하는 금요일까지 날로 셈해서 다음 금요일은 8일이 되는 식이다.

이와 같은 셈법의 흔적을 현대 언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그리스 사람들은 올림픽이 열리는 주기에 해당하는 4년을 ‘pentaeteris’라고 부르는데, 이 말의 어원은 ‘5년’을 뜻한다. ‘2주’를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현대 프랑스어 ‘quinze jours’는 어원을 따지자면 ‘15일’을 가리키는데, 시간적으로는 동일한 기간이지만 시간을 셈하는 방식에 따라 마지막 날과 해가 달라진 것이다.

- ① ‘0’ 개념은 13세기에 유럽에서 발명되었다.
- ② 『성경』에서는 예수의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해 그의 부활 시점을 활용하였다.
- ③ 프랑스어 ‘quinze jours’에는 ‘0’ 개념이 들어오기 전 셈법의 흔적이 남아 있다.
- ④ ‘pentaeteris’라는 말이 생겨났을 때에 비해 오늘날의 올림픽이 열리는 주기는 짧아졌다.

[9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물은 자신의 종에 속하는 개체들과 의사소통을 한다. 꿀벌은 춤을 통해 식량의 위치를 같은 무리의 동료들에게 알려주며, 녹색원숭이는 포식자의 접근을 알리기 위해 소리를 지른다. 침팬지는 고통, 괴로움, 기쁨 등의 감정을 표현할 때 각각 다른 ㉠ 소리를 낸다.

말한다는 것을 단어에 대해 ㉡ 소리 낸다는 의미로 보게 되면, 침팬지가 사람처럼 말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침팬지는 인간과 게놈의 98%를 공유하고 있지만, 발성 기관에 차이가 있다.

인간의 발성 기관은 아주 정교하게 작용하여 여러 ㉢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초당 십여 개의 (가) 소리를 쉽게 만들어 낸다. 이는 성대, 후두, 혀, 입술, 입천장을 아주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침팬지는 이만큼 정확하게 통제를 하지 못한다. 게다가 인간의 발성 기관은 유인원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르다. 주요한 차이는 인두의 길이에 있다. 인두는 혀 뒷부분부터 식도에 이르는 통로로 음식물과 공기가 드나드는 길이다. 인간의 인두는 여섯 번째 목뼈에까지 이른다. 반면에 대부분의 포유류에서는 인두의 길이가 세 번째 목뼈를 넘지 않으며 개의 경우는 두 번째 목뼈를 넘지 않는다. 다른 동물의 인두에 비해 과도하게 긴 인간의 인두는 공명 상자 기능을 하여 세밀하게 통제되는 ㉣ 소리를 만들어 낸다.

방각본 출판은 책을 목판에 새겨 대량으로 찍어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소수의 작품으로 많은 판매 부수를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즉, 하나의 책으로 500부를 파는 것이 세 권의 책으로 함께 500부를 파는 것보다 이윤이 높다. 따라서 방각본 출판업자는 작품의 종류를 늘리기보다는 시장성이 좋은 작품을 집중적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작품의 규모가 커서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 올라가 책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량이 적은 작품을 선호하였다. 이에 따라 방각본 출판에서는 규모가 큰 작품을 기피하였으며, 일단 선택된 작품에도 종종 축약적 운색이 가해지고는 하였다.

일종의 도서대여업인 세책업은 가능한 여러 종류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편이 유리하고, 한 작품의 규모가 큰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소설을 빌려 보는 독자들은 하나를 읽고 나서 대개 새 작품을 찾았으니, 보유한 작품의 종류가 많을수록 좋았다. 또한 한 작품의 분량이 많아서 여러 책으로 나뉘어 있으면 그만큼 세책료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세책업자들은 스토리를 재미나게 부연하여 책의 권수를 늘리기도 했다. 따라서 세책업자들은 많은 종류의 작품을 모으는 데에 주력했고, 이 과정에서 원본의 확장 및 개작이 적잖이 이루어졌다.

9. 밑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의 인두 길이는 인간의 인두 길이보다 짧다.
 - ② 침팬지의 인두는 인간의 인두와 98% 유사하다.
 - ③ 녹색원숭이는 침팬지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④ 침팬지는 초당 십여 개의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10. ㉠ ~ ㉣ 중 문맥상 (가)에 해당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11. 밑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분량이 많은 작품은 책값이 비쌌기 때문에 세책가에서 취급하지 않았다.
 - ② 세책업자는 구비할 책을 선정할 때 시장성이 좋은 작품보다 분량이 적은 작품을 우선하였다.
 - ③ 방각본 출판업자들은 책의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해 원본의 내용을 부연하여 개작하기도 하였다.
 - ④ 한 편의 작품이 여러 권의 책으로 나뉘어 있는 대규모 작품들은 방각본 출판업자들보다 세책업자들이 선호하였다.
12. 밑줄 친 표현이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습도가 올라가는 장마철에는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 ② 내가 키우던 반려견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 ③ 그녀는 승진해서 본사로 올라가게 되었다.
 - ④ 그는 시험을 보러 서울로 올라갔다.

13. 갑 ~ 병의 주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 오늘날 사회는 계급 체계가 인간의 생활을 전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사회 이동을 경험하며, 전문직 자격증에 대한 접근성 또한 증가하였다. 인터넷은 상향 이동을 위한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통적인 계급은 사라지고, 이제는 계급이 없는 보다 유동적인 사회 질서가 새로 정착되었다.

을: 지난 30년 동안 양극화는 더 확대되었다. 부가 사회 최상위 계층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계급 불평등은 경제 전반의 발전을 위해 치를 수밖에 없는 일시적 비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 수준이 향상된 지금도 이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와 시장 규제 완화로 인해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계급 불평등이 더 고착되었다.

병: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계급의 전통적 영향력은 확실히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계급 체계는 여전히 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사회 계급은 아직도 일생에 걸쳐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정 계급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수명, 신체적 건강, 교육, 임금 등 다양한 불평등과 관련된다. 이는 계급의 종말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보 기>

- ㄱ. 갑의 주장과 을의 주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 ㄴ. 을의 주장과 병의 주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 ㄷ. 병의 주장과 갑의 주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14. (가)와 (나)를 전제로 결론을 이끌어 낼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모두 머리가 좋다.
- (나) 축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

따라서

- ① 키가 작은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다.
- ② 키가 작은 사람은 모두 머리가 좋다.
- ③ 머리가 좋은 사람은 모두 축구를 잘한다.
- ④ 머리가 좋은 어떤 사람은 키가 작지 않다.

15. 다음 글의 ㉠과 ㉡에 대한 평가로 올바른 것은?

기업의 마케팅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는 유행지각, 깊은 사고, 협업을 살펴본다. 유행지각은 유행과 같은 새로운 정보를 반영했느냐, 깊은 사고는 마케팅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었느냐, 협업은 일하는 사람들이 해결책을 공유하며 성과를 창출했느냐를 따진다.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적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 ①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가 유행지각,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면, ㉠은 강화된다.
- ②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 중 유행지각,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중 하나 이상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사례가 있다면, ㉠은 약화된다.
- ③ 유행지각,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중 하나 이상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지만 성공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은 강화된다.
- ④ 유행지각,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은 약화된다.

16. 다음 글의 ㉠을 강화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신석기시대에 들어 인류는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인류의 초기 주거 유형은 특히 바닥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이는 지면을 다지거나 조금 파고 내려가 바닥을 만드는 ‘움집형’과 지면에서 떨어뜨려 바닥을 설치하는 ‘고상(高床)식’으로 나뉜다.

중국의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혈거’와 ‘소거’가 각각 움집형과 고상식 건축이다. 움집이 지붕으로 상부를 막고 아랫부분은 지면을 그대로 활용하는 지붕 중심 건축이라면, 고상식 건축은 지면에서 오는 각종 침해에 대비해 바닥을 높이 들어 올린 바닥 중심 건축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주거 양식은 혈거에서 소거로 진전되었다는 가설이 오랫동안 지배했다. 바닥 지면보다 높게 만드는 것이 번거롭고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1970년대에 중국의 허무두에서 고상식 건축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새로운 ㉠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혈거와 소거가 기후에 따라 다른 자연환경에 적응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보 기>

- ㄱ. 우기에 비가 넘치는 산간 지역에서는 고상식 주거 건축물 유적만 발견되었다.
- ㄴ. 움집형 집과 고상식 집이 공존해 있는 주거 양식을 보여 주는 집단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 ㄷ. 여름에는 고상식 건축물에서, 겨울에는 움집형 건축물에서 생활한 집단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17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문학, 즉 ‘국문학’은 “그 나라의 말과 글로 된 문학”을 지칭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문학에 대한 근대적 논의가 처음 시작될 무렵에는 (가) 국문학에서 한문으로 쓰인 문학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국문학 연구가 점차 전문화되면서, 한문문학 배제론자와 달리 한문문학을 배제하는 데 있어 신축성을 두는 절충론자의 입장이 힘을 얻었다. 절충론자들은 국문학의 범위를 획정하는 데 있어 (나) 종래의 국문학의 정의를 기본 전제로 하되, 일부 한문문학을 국문학으로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즉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을 국문학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 전자 중 일부를 ㉡ 후자의 주변부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국문학의 영역을 구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문학을 지칭할 때에는 ‘순(純)국문학’과 ‘준(準)국문학’으로 구별하게 되었다. 작품에 사용된 문자의 범주에 따라서 ㉢ 전자는 ‘좁은 의미의 국문학’, ㉣ 후자는 ‘넓은 의미의 국문학’이라고도 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절충안을 취하더라도 순국문학과 준국문학을 구분하는 데에는 논자마다 차이가 있다. 어떤 이는 국문으로 된 것은 ㉤ 전자에, 한문으로 된 것은 ㉥ 후자에 귀속시켰다. 다른 이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국문학의 영역을 구분하였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학은 차자표기건 한문표기건 모두 국문학으로 인정하고, 창제 이후의 문학은 국문문학만을 순국문학으로 규정하고 한문문학 중 ‘국문학적 가치’가 있는 것을 준국문학에 귀속시켰다.

17. 윗글의 (가)와 (나)의 주장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문으로 쓴 작품보다 한문으로 쓴 작품이 해외에서 문학적 가치를 더 인정받는다면 (가)의 주장은 강화된다.
 - ② 국문학의 정의를 ‘그 나라 사람들의 사상과 정서를 그 나라 말과 글로 표현한 문학’으로 수정하면 (가)의 주장은 약화된다.
 - ③ 표기문자와 상관없이 그 나라의 문화를 잘 표현한 문학을 자국 문학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라면 (나)의 주장은 강화된다.
 - ④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차자표기로 된 문학작품이 다수 발견된다면 (나)의 주장은 약화된다.
18. 윗글의 ㉠ ~ ㉥ 중 지시하는 바가 같은 것끼리 짝 지은 것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19.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을, 병, 정 네 학생의 수강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알려졌다.

-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명은 <글쓰기>를 신청한다.
- 을이 <글쓰기>를 신청하면 병은 <말하기>와 <듣기>를 신청한다.
- 병이 <말하기>와 <듣기>를 신청하면 정은 <읽기>를 신청한다.
- 정은 <읽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갑이 를 신청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 ① <말하기>
- ② <듣기>
- ③ <읽기>
- ④ <글쓰기>

20.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어의 형식적 요소에는 ‘음운’, ‘형태’, ‘통사’가 있으며, 언어의 내용적 요소에는 ‘의미’가 있다. 음운, 형태, 통사 그리고 의미 요소를 중심으로 그 성격, 조직, 기능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를 각각 ‘음운론’, ‘문법론’(형태론 및 통사론 포괄), 그리고 ‘의미론’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서 음운론과 문법론은 언어의 형식을 중심으로 그 체계와 기능을 탐구하는 반면, 의미론은 언어의 내용을 중심으로 체계와 작용 방식을 탐구한다.

이처럼 언어학은 크게 말소리 탐구, 문법 탐구, 의미 탐구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각각에 해당하는 음운론, 문법론, 의미론은 서로 관련된다. 이를 발화의 전달 과정에서 살펴보자. 화자의 측면에서 언어를 발신하는 경우에는 의미론에서 문법론을 거쳐 음운론의 방향으로, 청자의 측면에서 언어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한다. 의사소통의 과정상 발신자의 측면에서는 의미론에, 수신자의 측면에서는 음운론에 초점이 놓인다. 의사소통은 화자의 생각, 느낌, 주장 등을 청자와 주고받는 행위이므로, 언어 표현의 내용에 해당하는 의미는 이 과정에서 중심적 요소가 된다.

- ① 언어는 형식적 요소가 내용적 요소보다 다양하다.
- ② 언어의 형태 탐구는 의미 탐구와 관련되지 않는다.
- ③ 의사소통의 첫 단계는 언어의 형식을 소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 ④ 언어를 발신하고 수신하는 과정에서 통사론은 활용되지 않는다.